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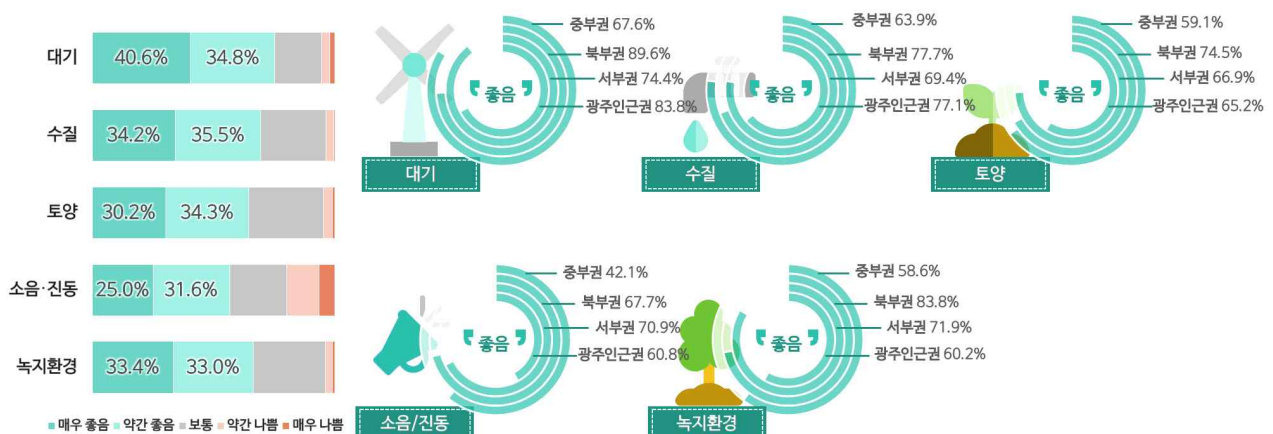
8 환경

1) 현재 체감환경 (공통)

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중 '대기(75.5%)'가 가장 좋다고 느낌

-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중 '대기', '수질', '토양', '소음·진동', '녹지환경'에 대해 「좋다」고 체감하는 사람이 「나쁘다」는 사람보다 많음
- 환경이 「좋다」고 느끼는 정도는 '대기'가 75.5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'수질(69.6%)', '녹지환경(66.3%)', '토양(64.6%)', '소음·진동(56.6%)' 순임
- 대기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75.5%, 「나쁨」 5.3%임
 - 지역별로 대기가 「좋다」고 느낀다는 북부권(89.6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수질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69.6%, 「나쁨」 3.5%임
 - 지역별로 수질이 「좋다」고 느낀다는 북부권(77.7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토양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64.6%, 「나쁨」 4.7%임
 - 지역별로 토양이 「좋다」고 느낀다는 북부권(74.5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소음·진동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56.6%, 「나쁨」 19.8%임
 - 지역별로 소음·진동이 「좋다」고 느낀다는 서부권(70.9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녹지환경에 대한 체감은 「좋음」 66.3%, 「나쁨」 3.6%임
 - 지역별로 녹지환경이 「좋다」고 느낀다는 북부권(83.8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〈그림 8-1〉 현재 체감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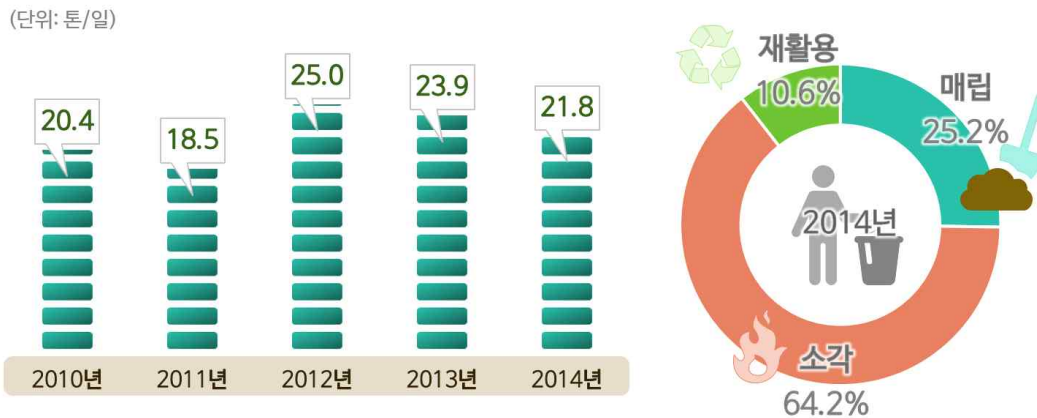


2)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 [기타]

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매립 5.5톤/일, 소각 14.0톤/일, 재활용 2.3톤/일

-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(매립, 소각, 재활용)는 21.8톤/일
 - 「매립」 5.5톤/일으로 2010년 대비 0.6톤/일 증가
 - 「소각」 14.0톤/일으로 2010년 대비 1.0톤/일 증가
 - 「재활용」 2.3톤/일으로 2010년 대비 0.2톤/일 감소
-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은 「소각」 64.2%, 「매립」 25.2%, 「재활용」 10.6%임

〈그림 8-2〉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



〈표 8-2〉 가정생활폐기물 처리현황

(단위: 톤/일)

	계	매립	소각	재활용
2010년	20.4	4.9	13.0	2.5
2011년	18.5	2.4	14.1	2.0
2012년	25.0	4.2	16.4	4.4
2013년	23.9	3.5	16.4	4.0
2014년	21.8	5.5	14.0	2.3

자료: 환경부, 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」 각년도